

아그파, 펀치그래픽스사와 파트너십 협약

아그파는 최근 펀치그래픽스사와 개발과 생산 파트너십을 확립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협약은 펀치그래픽스가 독점 공급원이 되어 폴라리스와 어드벤처 CTP를 전량 제작, 납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스트로베그래픽스로 알려진 펀치그래픽스는 지금까지 설치된 1500대 이상의 아그파 CTP시스템 중에 1천대 이상을 생산해 온 업체이다. 펀치그래픽스는 1996년부터 폴라리스 CTP시스템을 생산해 왔으며 2004년부터는 어드벤처 CTP시스템들도 생산하고 있다. 한편, 펀치그래픽스사는 상업용, 신문용, 패키지용 인쇄를 기반으로 그래픽 산업용 소모품 및 관련 디지털 프린팅과 프리프레스 시스템을 연구하고 생산, 보급하는 회사이다.

만로랜드, COLORMAN 4-1 공급



만로랜드사는 최근 독일의 라이프찌히에서 개최된 IFRA EXPO 2005 전시회에서 신제품인 COLORMAN 4-1 운전기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페인의 유력 일간지인 EL MUNDO의 신문을 인쇄하는 Fabripress s.a사에 도입될 이 기종은 본격적으로 출시되기 전에 판매된 것. 9실린더가 장착된 최신 인쇄 라인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판될 예정이다. 또 신문 인쇄의 양끝을 연결하는 클로즈드 룰(Closed loop) 시스템의 보강으로 자동화에 한발 더 다가섰다는 평을 이끌어냈다. 만로랜드가 올 9월까지 수주한 마케팅 실적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0억 유로에 달하며 그 중 60%가 넘는 6억5천만 유로는 신문 시스템 프로젝트에서 거뒀다.

하이델베르크 PMA 겨울학교 개최

하이델베르크사가 인쇄 관련 실무자들의 새로운 안목과 아이디어를 독려하는 프로그램의 하나인 2006 PMA(Print Media Academy)를 개최한다. 내년 1월15일부터 20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프린스 호텔에서 개최될 이번 PMA 과정은 인쇄 산업의 관리나 생산 부문의 책임자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실무진들이 주 대상이다. 수업 과정은 영어로 진행될 예정이며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인쇄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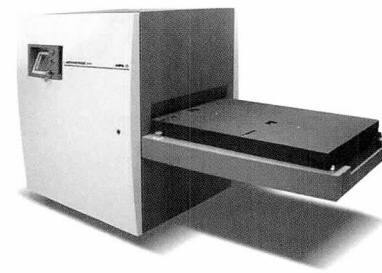
하이델베르크, 특수 인쇄 시연회 개최



하이델베르크사는 최근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와 비슬로흐에서 중소기업들을 위한 '특수 인쇄 시연회'를 개최했다. 전 세계에서 350

여명의 관람객이 참가한 이번 시연회에서 하이델베르크사는 SM52-8P 및 CD74-8P를 선보였다. 특히 코팅 유닛과 인라인 다이 커팅 유닛을 갖춘 인라인 후가공 방법들과 하이브리드 공정 등이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또 스피드마스터 CD74 듀오의 오프셋과 플렉소 인쇄를 통한 패키지, 라벨 생산, CD74용 컷스타도 많은 호응을 받았다. 유르겐 라우터트 기술 제작 담당 박사는 "숙련된 코팅 기술과 후가공에서의 축적된 노하우가 효과적인 인쇄물 제작에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아그파, 바이올렛 CTP 어드벤처 출시



아그파가 최근 독일에서 개최된 IFRA 전시회에서 새로운 신문사용 CTP시스템을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인 어드벤처 Xm/ Xs는 작업량이 중간 규모이거나 소규모 투자를

하는 신문에 알맞은 CTP다. 또한 카탈로그 등과 같은 상업용 작업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포트폴리오를 가진 업체에게도 적합하다.

어드벤처 Xm과 어드벤처 Xs는 수동 및 반자동 방식으로 로딩되며 각 장비 당 생산성이 시간당 85장으로 100~2540 dpi까지 여러 가지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삼면 맞춤 장치를 장착했으며 1040×690mm의 판재에도 이미징할 수 있다. 어드벤처 Xm/Xs는 실버계열의 리소스타나 N91 포토폴리머판재로 최적의 인쇄물을 구현할 수 있으며 Xs는 아그파 Lp68/85 혹은 VPP68/85 현상기를 통해 온라인 현상을 제공한다. 두 모델은 아키텍스의 뉴스 드라이브 소프트웨어에 의해 엔진의 속도 및 안정성을 최적화시킨다.

또한 아그파는 어드벤처 Xm/Xs 사용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리핑, 교정, 트래킹, 페이지 배열을 위해 포괄적인 부분에서도 각각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키텍스 워크플로를 실현했다.

Emma Isichei 아그파 신문사 사업부 이사는 "IFRA에 어드벤처 신제품을 선보이자마자 올해 말까지 여덟 대를 설치할 것에 대한 주문을 받아 놓을 정도로 소비자의 호응이 높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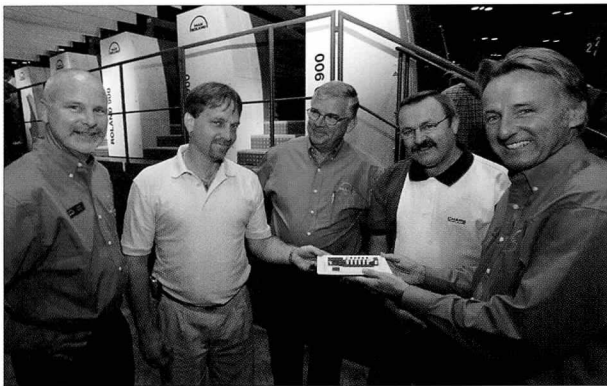


만로랜드, 계약 성과 두드러져

시카고에서 개최된 'Print 05' 전시회에 참가한 만로랜드사가 미국의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사에 인라인코팅 양면 5색 ROLAND 700을 판매했다. 또 LA에 위치한 Superior Lithographics사에도 Roland 900에 대한 설치 계약식을 완료했다.

추가적으로 도입, 설치될 기종들은 ROLAND 500 2대와 ROLAND 700 9대 등 총 11대에 이를 전망이다.

회사 측은 "이뿐만 아니라 캐나다 인쇄 회사인 St. Joseph Print사에 도 3대의 ROTOMAN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인쇄 유닛(6개, 4개)의 16쪽에 달하는 ROTOMAN 공급도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이델베르크, 폴리그래프 전시회 참가

하이델베르크사는 최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폴리그래프 전시회에서 1만여명의 방문객이 참가한 가운데 '스피드마스터 XL 105'와 '수프라세터 74'를 시연했다. 1천평이 넘는 부스를 통해 다양한 솔루션을 소개한 하이델베르크사는 1996년에 처음으로 러시아에서 사업을 실시했으며 모스크바에 본사를 두고 있다. 판매처는 전국 17개 주요 도시에 분포돼 있다. 베른하드 슈라이어 사장은 "러시아 시장은 과거와는 다르게 고품질 인쇄물 출력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추세"라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쇄기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전시회를 통해 소개된 수프라세터 74 장비와 폴라의 115x 재단기는 상트 페테스부르크에 위치한 Kella사에 설치될 예정이다.



뉴욕 타임즈, 아그파와 5년간 전략적 제휴

신문사용 프리프레스 솔루션 선도 업체인 아그파그래픽시스템과 뉴욕 타임즈 신문그룹은 최근 향후 5년간 워크플로와 아그파 CTP시스템에 대한 전략적인 공급 제휴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제휴협정으로 아그파의 워크플로 소프트웨어 솔루션 및 바이올렛 CTP 장비가 뉴욕 타임즈,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보스턴 글로브, 리저널 미디어 그룹을 포함한 모든 뉴욕 타임즈 신문 그룹에 우선 공급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첫 번째로 공급되는 시스템은 아키텍스 전송 시스템과 큐리어이며 이후에도 20대의 어드벤처 바이올렛 CTP 시스템이 미국 전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만로랜드, 운전부문 신임 사장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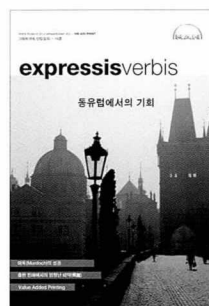


만로랜드사는 최근 운전 부문의 신임 사장에 피터 쿠이즐레(46)씨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24일부터 26일까지 한국에서 열린 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피터 쿠이즐레 신임 사장은 1960년생으로 슈트트가르트 기술대학 산업공학부 인쇄학과를 졸업했으며 1988년 유로그라피카사의 제품 및 프로젝트 매니저를 역임한 바 있다. 1992년부터는 유로그라피카가 만로랜드 부품 협력회사로 편입된 이후 운전기 프로젝트 총 책임자로 활동했다. 또 만로랜드 운전기 설치 시스템 업무를 통해 나타난 실적을 바탕으로 1998년 만로랜드 운전 영업 총 책임자로 취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상업용 운전기인 ROTOMAN이 설치된 (주)프린피아를 방문한 피터 쿠이즐레 신임사장은 "한국은 인쇄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많은 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비스 부문에 주력해 최상의 고객 만족도를 이끌어 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로랜드, 그래픽 아트 잡지 19호 발간



만로랜드가 최근 그래픽 아트 산업 잡지 19호(한글판)를 발행했다.

동유럽 국가들의 EU 가입이 유럽의 인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커버스토리로 게재된 이번 19호는 ▲광고 대행사에 대한 질문 ▲머독(뉴스코퍼레이션 회장)의 성공 ▲여성의 사업 등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졌다. 특히 차별화된 인쇄 기술로 고객에게 보다 나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부가 가치 인쇄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라는 테마(성공 공식-Value Added Printing)를 통해 한국 독자들에게 인쇄 산업의 세계 흐름을 각인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